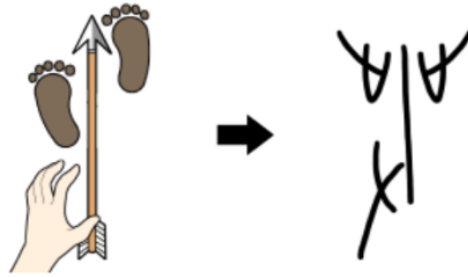


6(2)  
-  
31

회의문자 ㉠



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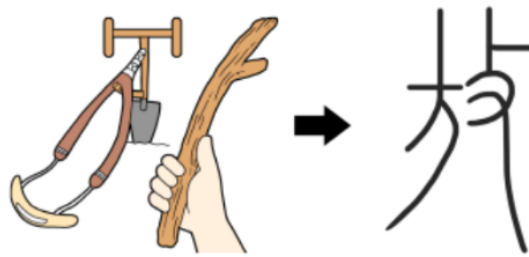
필/쓸  
발

發자는 '피다'나 '쏘다', '드러나다', '밝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發자는 𠂔(등질 발)자와 弓(활 궁)자, 𠂔(창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發자의 갑골문을 보면 𠂔자와 弓(또 우)자, 矢(화살 시)자가 함께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도망가는 사람을 향해 화살을 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發자의 본래 의미는 '쏘다'나 '발사하다'였다. 그러나 금문에서부터는 矢자가 弓자로 바뀌었고, 소전에서는 弓자가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의 弓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의 發자는 활과 몽둥이를 들고 누군가를 뒤쫓아 가는 모습이 되었다. 發자는 본래 화살을 쏜다는 뜻이었지만 누군가를 추격하기 위해 발자국을 따라가는 모습에서 '나타나다', '들추다', '밝히다'라는 뜻이 파생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6(2)  
-  
32

회의문자 ㉠



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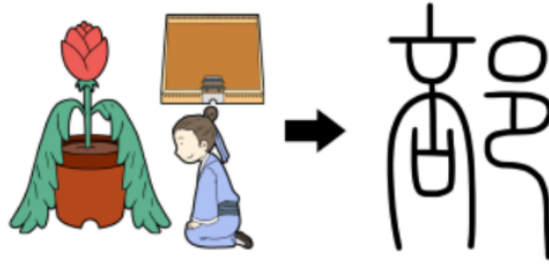
놓을 방

放자는 '놓다'나 '내쫓다', '그만두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放자는 方(모 방)자와 攴(칠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方자는 소의 등에 물리는 쟁기를 그린 것으로 '방위'나 '방향'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진 方자에 攴자를 결합한 放자는 몽둥이로 내쳐서 보낸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참고로 方자가 좌측에 위치할 때는 旅(군사 려)자가 생략된 것이지만 放자는 예외에 해당한다.

금문	소전	해서

6(2)  
-  
33

회의문자 ①



部

때 부

部자는 '때'나 '부락', '구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部자는 冫(침 부)자와 邑(고을 읍)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冫자는 '침'이나 '뱃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部자는 본래 '고을'이나 '마을'을 하나의 단위로 지칭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고대에는 각 행정구역이 서로 이어져 있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部자는 '이 마을'과 '저 마을'이라는 식의 의미를 주기 위해 만든 글자였으나 후에 서로를 구분하거나 분류한다는 뜻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부락'이나 '분류', '구분'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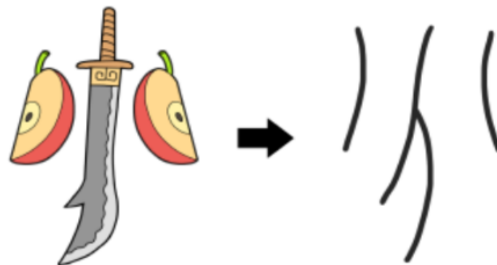
소전

部

해서

6(2)  
-  
34

회의문자 ①



分

나눌 분

分자는 '나누다'나 '배풀어 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分자는 八(여덟 팔)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八자는 사물이 반으로 갈린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사물이 나누어진 모습을 그린 八자에 刀자가 결합한 分자가 물건을 반으로 나누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分자는 사물을 반으로 나눈 모습에서 '나누어 주다'나 '배풀어 주다'라는 뜻을 갖게 됐지만, 물건이 나뉜 후에는 사물의 내부가 보인다는 의미에서 '구별하다'나 '명백하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分

갑골문

分

금문

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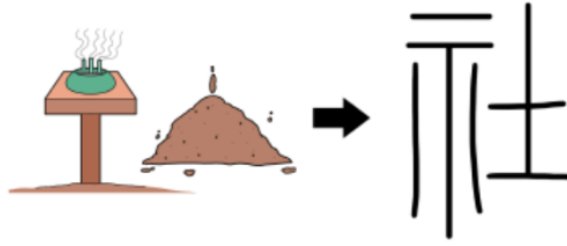
소전

分

해서

6(2)  
-  
35

회의문자 ①



社

모일 사

社자는 '모이다'나 '행정단위', '토지 신'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社자는 示(보일 시)자와 土(흙 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示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그린 것으로 여기에 土자가 결합한 社자의 본래 의미는 '토지의 신'이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제물을 바친다. 그래서 社자는 '토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후에 '모이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참고로 고대 중국에서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행정단위를 社라고 했다.

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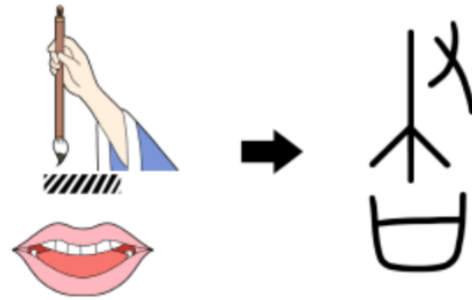
소전

社

해서

6(2)  
-  
36

회의문자 ①



書

글 서

書자는 '글'이나 '글씨', '글자'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書자는 聿(붓 울)자와 日(가로 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聿자는 손에 붓을 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붓'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여기에 '말씀'을 뜻하는 日자가 더해진 書자는 말을 글로 적어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참고로 일부에서는 日자가 먹물이 담긴 벼루를 표현한 것이라 해석하기도 한다.

書

갑골문

書

금문

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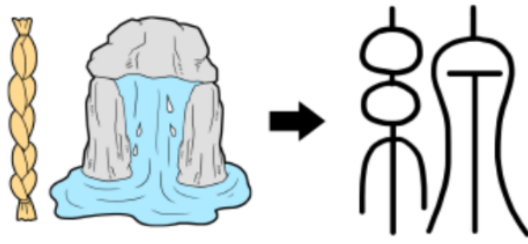
소전

書

해서

6(2)  
-  
37

회의문자 ①



線

줄 선

線자는 '줄'이나 '선', '실'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線자는 糸(가는 실 사)자와 泉(샘 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泉자는 암벽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線자는 실패에 감겨있는 긴 '실'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래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그린 泉자에 糸자를 결합해 '길게 이어져 있는 실'이라는 뜻을 표현하게 되었다. 다만 지금의 線자는 어떠한 것이 길게 이어진다는 뜻으로 쓰인다.

線

소전

線

해서

6(2)  
-  
38

회의문자 ①



雪

눈 설

雪자는 '눈'이나 '흰색', '고결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雪자는 雨(비 우)자와 彗(비 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彗자는 손에 빗자루를 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빗자루'나 '쓸다'라는 뜻이 있다. 雪자의 금문을 보면 雨자 아래로 彗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내린 눈을 빗자루로 쓰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눈을 표현하기 위해 재미있는 방법이 적용되었다. 그래서 본래 彗자가 적용된 霽(눈 설)자가 쓰여야 하지만 편의상 획을 줄인 雪자가 '눈'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외에도 雪자는 하얀 눈에서 착안 된 '고결하다'나 '씻어버리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雪

금문

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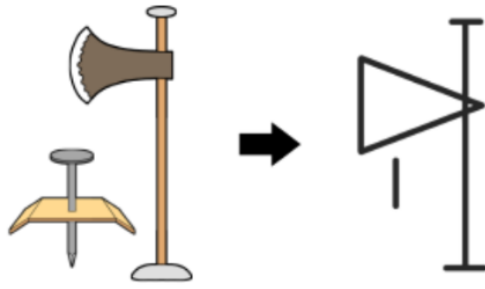
소전

雪

해서

6(2)  
-  
39

회의문자 ①



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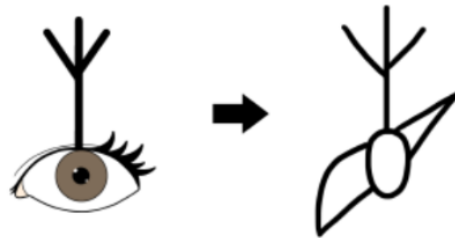
이룰 성

成자는 '이루다'나 '갖추어지다', '완성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成자는 戊(창 모)자와 丁(못 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戊자는 반달 모양의 날이 달린 창을 그린 것으로 '창'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창을 그린 戊자에 丁자가 더해진 成자는 본래는 '평정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었다. 여기서 말하는 '평정하다'라는 것은 적을 굴복시킨다는 의미이다. 成자는 후에 적을 굴복시켜 일을 마무리 지었다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지금은 '이루다'나 '완성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成자에 쓰인 丁자는 유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정→성'으로의 발음역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못을 박는 행위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6(2)  
-  
40

회의문자 ①



省

살필 성/  
덜 생

省자는 '살피다'나 '깨달다', '관청'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省자는 少(적을 소)자와 目(눈 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하지만 省자 갑골문을 보면 目(눈 목)자 위로 生(날 생)자가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초목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본래 省자는 작물이 자라는지를 살피본다는 의미에서 '살피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후에 백성들의 안위를 살핀다는 뜻이 파생되면서 '관청'이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省자가 상위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